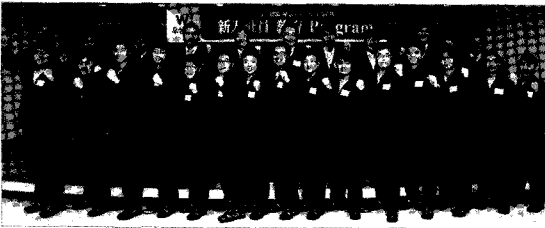


(주)우성사료

공채 37기 채용, 연수 실시



(주)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지난 11월 1일자로 37기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하고 연수를 실시했다.

지난 10월 공개 모집한 결과 100대 1의 치열한 경쟁 가운데 3차 최종면접을 통과한 유철중(충남대/경영학과)씨를 포함한 15명의 최종합격자가 그 주인공이다.

이번에 공개 채용된 15명의 신입사원들은 2주간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사회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익히고 앞으로 총 4개월간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주)우성사료의 신입사원 교육프로그램은 매우 체계적이며 강도가 높기로 업계에 정평이 나있다.

하지만 축산전문회사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으로 축종별 전문교육을 위해 현장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교육의 핵심은 고객농장의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주)우성사료의 축산 전문인재 육성 의지는 남다르다. 1972년 공채 1기를 시작으로 현재 37기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우성사료를 통해 배출된 전문 인재들은 국·내외의 축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주)트루라이프·서부사료(주)

활발한 사내 동호회 주목



직장인의 57%가 사내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00여명의 임직원 전원이 자발적으로 동호회에 가입, 활동하는 (주)트루라이프·서부사료(주)(대표이사 정세진)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주)트루라이프·서부사료(주)[이하 서부그룹]는 회사 차원에서 동호회 활동을 권장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며 '인1동호회 갖기 운동' 등으로 전 직원이 1개 이상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서부그룹에는 축구, 야구관람 등 스포츠에서 등산, 영화 등 문화레저, 봉사 및 직장선교 등 다양한 분야의 총 7개 동호회가 운영 중이며 대부분 월 1회 이상 모임을 가진다.

5명 이상 회원이 모이면 누구나 동호회를 만들 수 있으며, 회사에서도 여러모로 지원해준다. 특히 신입사원은 동호회 가입이 필수 관례로 자리 잡아 회사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동호회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현재 축구 동호회 'FC서부' 회원으로 활동하는

구매팀 김한준 대리는 “함께 땀흘리며 뛰는 팀플레이로 평소 교류가 어려운 사무직과 현장직 사수가 어울리고 친해지면서 회사 실무에도 도움이 되고 자연스럽게 축구 실력과 체력도 향상된다”라고 말했다.

실제 봉사동호회 ‘서툼사람들’은 봉사내용이 공중파 라디오에 보도되기도 하고 등산동호회는 설악산, 한라산에 이어 중국 황산 등반을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수준이다.

서부그룹은 이외에도 복장 자율화 적용 및 당직당번제 폐지, 아침 스탠딩 미팅 도입 등 기존의 관행적 업무에서 탈피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주)싱그린푸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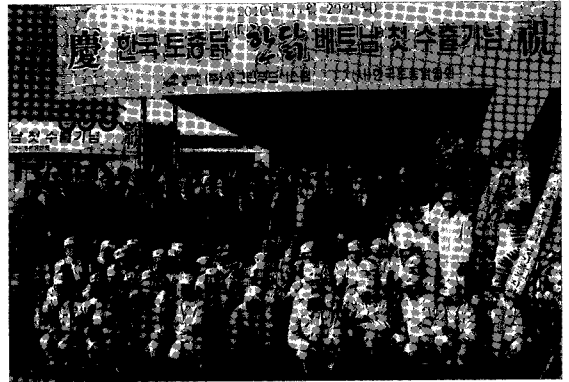
베트남에 토종닭 ‘한닭’ 처녀 수출

한국 토종닭 ‘한닭’이 베트남으로 처녀 수출길에 올랐다.

(주)싱그린푸드시스템(대표 김준형)은 지난 11월 29일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등의 유명 백화점과 대형 마트로 총 132톤, 약 10만수의 한닭을 수출하게 되었으며 이날 첫 컨테이너 선적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싱그린푸드시스템 김준형 대표를 비롯 한국토종닭협회 김연수 회장, 농림수산식품부 임지현 주무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강우현 회장, 한국농어민신문 정상수 대표, (주)한협 박준영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준형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토종닭



은 베트남 국민들의 입맛과 식성에 가장 좋은 육질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에 수출하는 토종닭은 인삼을 접목시킨 프리미엄 제품으로써 베트남 상류층을 겨냥한 것으로 안정적인 공급과 일정한 가격만 유지한다면 연간 1천만불 이상의 수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종닭협회 김연수 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토종닭 수출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토종닭 한닭의 우수성을 알려나갈 분들을 우리 모두가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며, “본 협회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수출하게 된 제품은 ‘한국 인삼먹인 토종닭’으로 1kg당 3.15\$의 가격으로 수출하게 되었으며 토종닭협회가 주관하는 ‘한닭 인증’ 마크를 받아 더욱 제품에 신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베트남 소비자의 육류소비선호도 1위가 닭고기이며, 그중 토종닭은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의 토종닭 사육현황은 90% 이상이다. 게다가 베트남의 닭고기 요리는 백숙, 볶음탕 등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이러한 현지 실정에 착안, 베트남에 한닭을 수출하게 된 (주)싱그린푸드시스템은 내년 300만수, 후년 500만수 등으로 수출량을 늘려갈 계획이다. MKC